

생의 후반기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Late-life Community Volunteer Opportunities

황진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Jinsoo Hwa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초록)

노인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활용의 가치가 매우 높은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져다주는 개인 및 사회, 국가적인 이득을 강조했으며, 이와 동시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식 또는 국가나 미래세대를 위한 의무 차원에서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주제어 : 노인, 자원봉사활동, 사회적 자원

(Abstract)

Overt and/or covert talents, Knowledge, and skills of older adults are the very important social resources to the public as well as to the private organization. However, volunteering by older people had been less activated in Korea than in most of developed countries. The author addressed the major benefits of the volunteering by them in terms of individual, community, and country. At the same time, he would like to appeal earnestly and expect the activation of volunteering by Korean older adults as social responsibility to the public as well as to their future generations.

Key words : Older adults, Volunteering, Social resources

* 본 사설은 2017년 8월 1일자 시니어신문에 실린 논설 “노인들이여, 이제 자원봉사 현장으로 가자!”를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황진수 명예교수 (e-mail: hjs@hansung.ac.kr).

IAGG라 약칭하는 세계 노년학·노인의학 학술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는 4년에 한 차례씩 개최된다. 지난 2013년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20차 대회가 개최되었고, 제21차 대회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017년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었다. 세계적인 유수한 7,000여 명의 학자들이 노인이나 노화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필자도 7월 26일 ‘한국노인의 적극적인 노화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자원봉사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해 노동이나 금전을 제공하는 노력 또는 행위인 자원봉사활동이 과거에는 개인 중심으로 했다면, 근래에는 단체나 기관과 같은 조직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다. 또 자원봉사의 강조점이 과거에는 단순히 공공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한 행위에 맞추어졌다면, 근래에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에 맞추어지고 있다(von Esσης, 2016).

자원봉사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자원봉사활동이 개인이나 사회에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논문은 수없이 많다. 생의 후반기에 시도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도 젊은 시절의 봉사활동에 못지않게 봉사자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에도 수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고령자 모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활동 자체가 봉사자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준다. 노인들의 자원봉사에 관련된 37편의 연구결과를 메타 분석(meta-analysis)한 바에 의하면, 자원봉사에 참여한 노인들도 주관적인 안녕감이나 생활 만족

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노인들의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받은 취약계층 사람들도 우울증이 감소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Wheeler, Gorey, & Greenblatt, 1998). 봉사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을 정립할 수 있고, 자긍심도 높이고, 지역사회나 가족으로부터 존경심을 얻는 등 삶에서 보람을 얻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다(Piliavin & Siegel, 2007; Willigen, 2000).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할애하면서 얻는 개인적인 이득은 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들에게 더 두드러진다. 건강상의 이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얻는 정서적 이득, 수명 연장 등의 효과도 적지 않다(Tang, Choi, & Morrow-Howell, 2010). 자원봉사자로 인한 이득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도 적지 않는 이득이 생긴다. 개인적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비롯하여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인 인력의 활용이라는 점도 큰 소득에 해당된다(이금룡, 2017).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어떠한 실태인지를 간략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원봉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8.2%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6.6%에 불과하다(통계청, 2015). 우리나라 노인들의 참여율을 영국 41%, 독일 26%, 미국 24.4% 등에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근래 우리나라에는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 자원봉사지원센터, 수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각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다. 그 중에서 대한노인회 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201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센터는 현재 1,700개의 클럽(club)이 있으며, 클럽 당 거의 15-20명 정도의 노인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16년 4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었는데, 클럽 당 활동비 보조는 월 10만 원 정도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노인복지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의외로 다양하다. 근래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진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종로구 이화동에서의 벽화마을을 가꾸는 활동을 비롯하여 종로구 원서동에서의 농아 장애인을 위한 게이트볼 교습활동, 중구 청구동 무지개마을에서의 노인 이·미용 봉사, 성동구 실버랜드의 복지관과 경로당 방문 음악공연 봉사활동, 구로구에서의 한글 문해(文解) 및 약품살포 활동, 양천구의 환경미화활동이나 음악봉사활동, 서초구의 고전무용공연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외로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말동무를 해주는 일,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활동으로 화단 가꾸기, 폐휴지 줍기로 환경정화활동, 자신의 탤런트인 음악공연이나 마술쇼 등 예

능으로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공연하는 일,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정리와 아동보호활동, 동료노인들을 위한 글공부나 컴퓨터, 휴대폰 사용 교육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외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최근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와 백세시대¹⁾에서 자원봉사활동 클럽 회원 1,000여 명(전체 응답자의 94.4%가 65세 이상이었고, 여성 응답자 비율 53.6%이었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빈도는 응답자의 절반이 한 달에 1-2회, 1주에 1-2회 참여가 거의 30%, 그리고 주 3회 이상이 16%를 넘었다. 만족도의 경우 응답자의 85.0%가 자원봉사활동에 만족한다는 반응인 반면, 보통이라는 반응은 14.4%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0.6%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91.3%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한다고 한 반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반응은 0.1%에 불과했다. 역시 거의 84%가 자원봉사활동이 노년기 생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 반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었던 것으로는 건강증진이라는 응답이 32.7%,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24.9%, 여가활용이라는 응답 23.3%,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 16%, 그리고 마을과 이웃에 도움이라는

1) ‘백세시대’는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여는 시니어 신문(www.100ssd.co.kr)이며, 기사 내용은 2017년 4월 7일자 664호에 게재되었던 것임.

응답이 2.5% 정도였다. 앞으로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 분야로는 품앗이나 환경 개선 등 마을가꾸기 활동이 40.6%로 가장 높았고, 생활습관 개선이나 금연, 혈당 관리도 노인건강 증진 활동을 꼽는 비율이 26.8%이었다.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조사결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노인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서 활용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조직이나 기구의 구조에 따라 봉사활동의 종류나 방법 등이 다르겠지만, 조직의 지지를 토대로 자원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도 가능하다. 기술 부족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주요 장애가 된다면, 훈련에 의해서라도 기술을 향상시켜주어야 한다(Tang et al., 2010). 자원봉사활동 참여비율이 낮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자원을 사장시키는 꼴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원 활용의 노인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려면 적어도 자원봉사활동이 지금보다 더 전문화되어야 하고, 다양해져야 함과 동시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경제적 여유가 풍부하지 않는 노인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이금룡, 2017).

물론 인생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여행으로 바라보는 여유가 있다면 재정적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자원봉사활동을 즐길 수도 있다. 중국의 사자소학이나 주역 등 여러 고전에 소개되는 공자의 ‘적선지가(積善之家) 필유여경(必有餘慶)’이라는 말이 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여 그것이 쌓이면 그 집안에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는 말은 당대

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손 대에 가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또 자원봉사를 사회적 신분이 높은 인사에게 그 신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에도 비유할 수 있다. 곧 자원봉사를 투철한 도덕 의식에서 초기 로마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자발적으로 또 경쟁적으로 보여준 공공봉사나 기부, 헌납 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Stebbins, 2000). 이와 같은 의식이나 의무가 우리나라에도 정착될 수 있는 국민 계몽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참여를 하는 일은 미시적으로는 개인이나 그의 가족을 위한 일이지만, 거시적으로는 노인세대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미래세대나 국가의 경쟁력도 제고시켜줄 수 있는 일이다(김수영·이민홍·장수지, 2014; Tang et al., 2010).

참고문헌

- 김수영·이민홍·장수지 (20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 변화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4, 371-393.
- 이금룡 (2017). 한국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노년학연구*, 26(1), 37-45.
- 통계청 (2016).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 Available at <http://www.narastat.kr/ess2015>.
- Piliavin, J., & Siegl, E. (2007). Health benefits of volunteering in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8(4), 450-464.

- Stebbins, R. (2000). Antinomies in volunteering: Choice/obligation, leisure /work. *Society and Leisure*, 23(2), 313-324.
- Tang, F., Choi, E., & Morrow-Howell, N. (2010). Organizational support and volunteering benefits for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50 (5), 603-612.
- von Esses, J. (2016). On the meaning of volunteering: A study of world views in everyday life. *Foundations of Science*, 21(2), 315-333.
- Wheeler, J., Gorey, K., & Greenblatt, B. (1998). The beneficial effects of volunteering for older volunteers and the people they serve: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7(1), 69-79.
- Willigen, M. (2000). Differential benefits of volunteering across the life cours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5(5), S308- S318.
- 원고접수일: 2017. 09. 20.
수정원고접수일: 2017. 11. 03.
원고게재승인일: 2017. 11. 15.